



다시보는 '13척 대 133척' 명량대첩 지난 10일 '2015 명량대첩축제가' 열리고 있는 진도 울돌목 해상에서 130여척의 어선이 동원돼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수군 13척이 일본 수군 133척을 격파하는 명량해전이 재현되고 있다. > 관련기사 5면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청 남악신도시 이전 10년 명암

남악, 서남권 핵심 거점으로 부상 광주·전남, 동력 분산 성장 한계

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한지 오는 15일(업무개시 시점)로 만 10년을 맞는다. 이전 이후 광주시 동구의 옛 도청 부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탈바꿈했으며, 무안군의 한 농촌마을은 전남 서남부권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목포·무안권의 인구는 2010년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남악신도시 조성사업도 남악·옥암·오룡지구 이외에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초 15만명의 인구를 예상했지만 지난달 말 현재 그 3분의1 수준인 5만 4000여명에 그치고, 광주나 타 시·도가 아닌 목포에서의 인구 이동을 촉발하면서 목포 원도심 쇠락이라는 새로운 문제도 야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권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광주·전남의 동력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말 880명(248가구)이었던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인구는 전남도청 이전 10년만인 지난해 현재 1만366세대 3만374명의 신도시로 조성됐다. 남악지구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62.2%인 1만886명(6150가구)이 목포에서, 15.9%인 4839명(1742가구)이 전남 타 시·군에서 주소를 이전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남악신도시가 광주나 타 시·도가 아닌 목포와 인

근 시·군의 인구를 받아 조성됐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9월말 남악신도시 인구가 1만7949명(6191가구)였다. 집을 감안하면 성장세는 분명하지만 목포시의 원도심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지난해 말 목포·무안권 인구는 32만1000명으로, 10년 전인 2004년 말보다 1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옥암지구 인구는 2만40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76곳의 공공기관이 남악신도시에 자리했지만, 직원 상당수가 여전히 '나홀로' 이주했거나 출퇴근하면서 광주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맞벌이, 아이들 교육문제 등으로 가족이 모두 광주에서 도청 인근으로 이주하기 어려운 처지다.

여기에 남악·옥암지구 내 '임대' 광고를 낸 오피스텔, 사무용 건물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에도 전남도는 옹호지구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산업기반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전만을 전제로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인근 지자체의 인구 유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후폭풍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1993년 무안군 삼향면 일원으로 후보지를 결정한 후 도청 이전을 추진하면서 전남 동부권의 불만, 호남 중심거점 광주의 동력 약화 등 후유증도 남아 있다.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오늘 발표

정부가 12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교육부가 내일 공식적으로 국정화를 발표할 것"이라며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오후 2시 직접 브리핑을 하고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포함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다. 국정화가 확정되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7년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통합교과서'로 배우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과 역사학계, 교육계에서

는 국정 교과서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 교과서로 바꾸는 문제는 군사적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헌법 개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선거구·공천률·정치 지형 '안갯속'

혼돈의 20대 총선

깜깜이 선거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안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데다 여야 모두 내부 갈등으로 총선률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여의도 입성

광주사범·사대 광주교육대학교

제41회 총동문체육대회
 ■ 일시 : 2015. 10. 24 (토) 09:00
 ■ 장소 : 모교 운동장(공향대)
 ■ 전화 : 062)520-4555
 광주사범·사대·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우 흥 민

6개월 앞... 현역 의원·입지자들 선거전략 못세워 '갈팡질팡'

유권자들도 옥석 가릴 시간 없어 함량미달 후보 속출 우려

을 노리는 도전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선거일이 하루 하루 다가옴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 준비를 해야하는데도, 사실상 '총선 가이드라인'이 하나도 결정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입지자들은 현재 선거구를 중심으로 '바닥 민심'을 다지며 정치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아파트에 포위된 무등산국립공원 ▶6면

그림 편지-문정호 화가 보길도 ▶18면

배상문, 아깁다 18번을
 프레지던트컵
 세계연합 1점차 패배
 ▶20면

연구 숫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획정위가 획정안을 시한내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만약, 획정위가 기한을 준수하더라도 정치권이 한달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도 미지수다. 관련법에 따라 국회 정계특위가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획정위가 재획정안을 제출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이후 정정이 없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선거법상 규정된 11월 13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12월 15일 전까지 확정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입지자들은 장기간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유권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져도 후보자에 대한 옥석을 가리기도 쉽지 않은 판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함량 미달'의 후보들이 속출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공천률도 여야가 '안심 반호제'에 합의 하긴 했지만,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공천방식에 따라 총선 입지자들이 공천전략을 짜야하는 만큼 입지자들은 최종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참 많은 분들이 인산의학에 오셔서 큰 병 이기는 큰 희망을 담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인산의학의 계승자 김윤세 교수(광주대 생명건강과학과)의 [암·난치병을 이기는 희망강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자연치유, 대체의학의 새로운 길을 확신하셨습니다.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알펜시아 웨딩홀에서 공해시대 암·난치병 극복 비법을 얻어가십시오!

[암·난치병 이기는 비법 공개]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
인산의학 계승자 김윤세 교수의 '자연치유'특강

주제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
 강연 김윤세 교수 (인산가 회장·광주대 생명건강과학과 교수)
 일시 10월 14일(수) 오후 2시
 장소 광주 서구 내방로 417 알펜시아 웨딩홀 (구 갤러리아 웨딩홀)
 문의 및 접수 062)363-9585 (광주직영점)

월간 인산학을 구독신청 하십시오!
 내 병을 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자연치유 및 대체의학에 관한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1년만 구독하셔서, 그 내용을 실천하시면 분명 새로운 희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독신청: 1577-9585)